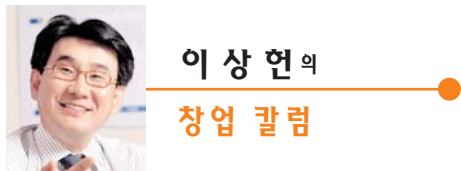


공유공간·숙박업창업 인허가 규정 개선해야



이 상 현
창업 칼럼

요즘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소비가 마스크 해제와 동시에 보복소비형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일 흡소핑에서 판매되는 해외여행상품들이 대박이라는 기사가 즐비하고, 제주도 항공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전반적 경기상황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선 아직 7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매출대비 세금과 공과금, 원부재료비용은 오히려 크게 올라 현실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낮아져 있다. 유독 여행관련 업종들의 호황현상은 소위 그동안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여행욕구심리가 각종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폭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 이후 증가했던 골프인구와 비례한다. 각종 골프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오히려 해외에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는 비용과 크

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스스로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소위 그로 인한 골프인구의 해외유출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가격,서비스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제도적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정비할 시간이다.

일례로 소위 유명하다는 관광지나 지역내 숙박,식당등 이용금액의 바가지는 매년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얼마전 백종원씨가 고향지역내 전통시장과 관공서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탑재해서 명소로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보니 해당시장을 방문.여러가지를 점검했으나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고객중심이 아닌 상인,지역중심으로 서비스와 품질이 너무 아쉽게 운영되는 실정을 확인했다.

얼마전 동해시에서 불법숙박업소를 단속한 기사를 접했다. 동해시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었고 서울에서 두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KT X 목호역이 있으므로 급격히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만큼 잘 준비하고 노력의 결과라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허가규정에 대한 미비로 통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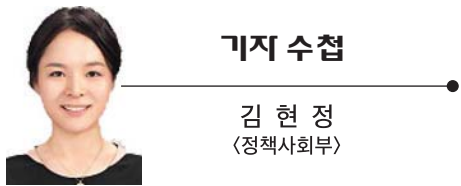
숙박시설을 그것도 바가지요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곧 타 지역과 같은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공유공간 아이템인 에어비앤비의 미신고 운영 업소에 대한 규제내용이다. 물론 불법을 용인하고 조정해서는 안 된다. 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선량한 시민을 불법적 운영의 범법자로 만들고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소는 숙박과 임대로 구분되고있다. 숙박은 침구류의 제공과 세탁지원,수건과 샴푸등을 제공하며 하루이상 장소공유를 의미하고, 임대는 관련한 내용을 제공치 않고 일주일 이상 단순 공간 임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규정 또한 애매하다. 확실한 구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규정을 수정하고 합법적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정부나 관련 단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저 옛날 잣대로 흑백논리만으로 규정만 운운하면 오히려 관련 지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일 뿐임을 관련 공무원들은 자각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서울링, ‘미세먼지 체험 대관람차’ 되나



김지수
기자 수첩

20일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탑승해도 옆에 아홉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탓에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기존에 쓰던 비말마스크 대신 KF94마스크를 찾아 쓸 정도로 이날 대기 질은 나빴다.

그간 배출가스 5등급차를 미세먼지 유발 주적으로 삼아왔던 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고 운행 단속을 강화해 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사업을 벌여 총 50만7918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서울 하늘을 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84㎍/㎥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정책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시는 오 시장이 15일(현지시간) 런던 하이드파크 일대를 둘러보고 ‘서울링’이 들어설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서울의 공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서울 공원 명소화’ 구상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서울링은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공원에 건립되

는 대관람차다. 96m 높이 하늘공원 위에 지름 180m로 만들어져 중심축과 바퀴살을 없앤 고리형 대관람차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하나 서울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요원해 보인다. 과거 큰 실패를 맞본 대규모 토건 사업의 안 좋은 선례(4대강, 세빛둥둥섬 등)를 떠올리며 세금이 살살 녹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서울링 건립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 구상 보다는 유럽 도시들의 맑은 하늘을 보며 서울에 벤치마킹해 도입할 미세먼지 저감책을 모색하는 게 나았을 듯하다. 서울링이 ‘서울 도심 미세먼지 체험 대관람차’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1일 (음 2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복 받는 것보다 복짓는게 먼저. 48년생 우물을 발견했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난감. 60년생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소독은 늘어나 행복. 72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 84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니 다들 싫어한다.

37년생 옥은 옥이기에 드러내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귀하니. 49년생 깊은 밤은 아침을 위한 준비. 61년생 고맙다는 말이 듣기 좋다. 73년생 굵은 길 편하지 않는 길을 위기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기도. 85년생 새벽길 운전조심.

38년생 나이가 있어도 큰 바다로 나아가는 계기가 온다. 50년생 오늘의 부는 부모님이 복을 지은 덕분이다. 62년생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지 마라. 74년생 만남에 필요이상 의무부여는 상황을 왜곡 시킨다. 86년생 능력에 맞춰서 추진.

39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51년생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도전. 63년생 원행을 금하고 건강을 살려라. 75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은 없는 하루. 87년생 주변과 협력하면 영역시너지가 넓어진다.

40년생 타고난 각자의 그릇이 다르기에 결국 자기 그릇복대로 사는 것이다. 5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4년생 기다림이 기회로 온다. 76년생 부지런히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자. 88년생 인연을 만나니 감사.

41년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방심으로 잃게 된다. 5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니 고단하다. 65년생 무리한 투자보다는 에너지축적의시기. 7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89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각오.

42년생 과거의 지식과 능력으로 현재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54년생 서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 66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말고 노력. 78년생 초지일관하여 완수. 90년생 팔짱 끼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43년생 운명을 얘기할 때 숙명을 간과할 수 없다. 5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다. 67년생 우리속담에 노루를 피하니 범이 온다는 말이 있다. 79년생 노력하여 경제적 여건이 호전. 91년생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아니다.

44년생 일의 자척이 느려도 쫓기지 마라. 56년생 기분 좋아지는 내 얼굴에서 운이 상 승된다. 68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좋다. 80년생 평안하고 소구원만 하기를 기도명상해보라. 92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히.

45년생 불평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57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다림 일수. 69년생 배우자와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1년생 지키고 자제하는 것이 현명. 93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큰 기대보다는.

46년생 젊어서의 노력한 일이 이제는 보답으로 주어진다. 58년생 가족도 자주 만나야 돈독해 진다. 70년생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잘 피게 된다. 82년생 바람이 불어 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94년생 일중독자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즐겁다.

47년생 감나무의 감처럼 풍요롭다. 59년생 커피 값에 집착하려거든 만나지 마라. 71년생 총명하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자의 기준은 일단은 건강하다는 의미. 83년생 갈 길은 먼데. 95년생 허름한 옷을 입었으나 가슴속에는 옥을 품고 있다.

김상회의四季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인도印度의 부자집안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는데이때 이름이 광목이었다. 대문 밖을 나갔는데 어린아이가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입지도 못한 채 헐벗고 굶주린 채로 쓰러져서 동사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녀는 재빨리 달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동사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어린아이를 급히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 채 알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광목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마침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땅의 신 지신地神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땅에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 속에 소녀의 몸을 감출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땅이 감추어준다는 뜻으로 지장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명주부전의 주불主佛인 지장보살은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육도六道(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불시키고자 하는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지장보살에게는 항상 두 분의 협시協侍가 있는데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다.

도명존자는 중국의 양주땅에 개원사의 승려였는데 대략 13년(778년)2월 8일 누런 옷을 입은 저승사자 3명이 와서 그를 잡아갔다고 한다. 막상 저승에 가서보니 도명을 잡아와야 하는 것을 저승사자가 잘못 잡아온 것이 밝혀져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부터 도명은 지옥을 출입한 승려라고 하여 지장보살을 협시하게 된 연유가 되었다. 무독귀왕은 지장보살이 전생에 인도의 부자집 무남독녀로 있을 때 그녀의 시중을 들었던 인연으로서 협시를 할 수 있게 연결되어 시봉하는 것이다.

지장본원경참조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5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3		8			
1			4		
			2	7	9
	4				
8	1		5		4 2
					1
5		2	7		
			3		5
				3	4

			3	9	
4		3		5 9	
	5			7	
	3 8				1
		9		1	
	1			7 6	
3			5		9
		1 7		2	8
		1	2		

정답

7	2	8	9	8	9	1	2	6
9	2	6	1	8	2	7	8	9
8	9	1	7	2	6	2	8	9
8	1	8	2	6	7	9	9	2
2	7	9	2	9	8	6	1	8
2	6	9	9	1	8	8	7	2
6	8	2	8	2	1	9	9	7
9	8	2	8	7	9	2	6	1
1	9	7	6	9	2	8	2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